

야곱, 벧엘에서 엘벧엘로!(2)(도약5)

본문: 창 35:1-7

우리는 지난 번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과 도약,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두 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알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벧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괜히 버티다 갈등과 고뇌만 더 경험하지 말고, 더 체력이 소모되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게 하지 말고, 일찌감치 두손들고 하나님께로 순복하며 돌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정결케 해야 됨을 알아 보았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갈아 입었던 것처럼, 오늘 날 우리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이란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늘 자신을 영육심간 정결케 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회복과 도약을 위한 마지막 세번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6-7절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

드디어 야곱과 가족들은 목적지 벧엘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Ei Bethel)”이라 불렀습니다.

본문 7절 전반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단순히 “하나님의 집(Bethel)”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Ei Bethel)”, 즉 “God of Bethel”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제 야곱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과 도약의 때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던 길의 첫 벧엘에서도 돌기둥을 세우며 기름을 붓고 예배드렸습니다 (창 28:18). 그리고 벧엘에 다시 올라온 둘째 벧엘, 즉 엘벧엘에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본문 6-7절).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들어 왔음에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오늘날 벰엘,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 살아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히 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엘벰엘로 올라간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다시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말씀을 들으며 축복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먼저 그는 압복강가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사기꾼”이란 의미의 야곱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란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이 바꾸어 받았던 축복을 다시금 확인받았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 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 35:10).

오늘날 우리들도 더 이상 과거 세상의 세속적인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축복의 새 이름으로 다시금 불리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가령 어느 신앙인은 본인의 묘비명에 “그리스도인 아무개 이 곳에 잠들다”라고 쓰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며 그에게로부터 많은 국가들과 왕들이 나올 것임을 다시금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다시금 확인받았습니다.

“11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35:11-12).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자손들을 많이 낳길 소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보다 확실히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령 가족복음화와 이웃 영혼 구령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벰엘에 세번째로 완전히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며 벰엘,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완전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세 번 드림으로 완전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벰엘에 세 번 단을 쌓음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야곱처럼 자신의 회복과 도약, 나아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벧엘”에서 “엘벧엘”로 도약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신앙인임에도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또한 영적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되시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